

작은 절에서 큰 음악가 나왔다

서울 신림동 정혜사의 두 '음악 영재' 이야기



정혜사 법당에서는 가끔 불보살님과 성보 스님을 청중으로 모시고 플루트와 콘트라베이스의 관현악2중주가 연주된다. 왼쪽부터 김형주군, 성보 스님, 기원 스님.

“나에겐 소중한 자식과 같기늘 안락의 성으로 함께함이 그토록 어렵을까. 누가 기르고 보호해 이들을 못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할까.” <보성론> ‘일체중생유래장품’ 반야바라밀의 대비행이다. 자식과 같이 애지중지한 연민의 대상이 있어 범부의 대지로 되돌아와 보현행을 조복함에 대한 비유다.

실제 방편력으로 정진을 발하고 견고한 마음을 일으켜 깨달은 바 몸소 실천으로 회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신림동 해돋이 길을 따라 주객이 밀집한 곳에 정갈하게 자리한 정혜사가 바로 그곳. 성보 스님(정혜사 주지)을 지휘자로 기원 스님(27·중앙대 예술대학원 음악과 전공·은석초등학교 출강)의 플루트 그리고 천진불 음악 신동 김형주(11·신림초 5)군의 콘트라베이스가 선사하는 작은 음악회의 막이 오른다.

#“반듯하게 키웠다는 소리 들을 때 진정한 삶의 의미 느낍니다”

기원 스님이 음악을 하겠다고 다짐한 때가 고등학교 시절이다. 대학 입시에 매진해도 부족한 때였지만, “플루트를 하겠다고? 그것도 절집에서 서양 음악이라니!” 주지스님은 쉽게 용납하기 어려웠다. 일반 가정에서조차도 사치로 인식되는 것이 예술인데다 서양음악의 클래식이란 장르가 기독교를 찬양하는 내용 일색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녀석하지 않은 절집에 시주 받은 돈으로 악기를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 주위의 염려와 따가운 눈총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고등학교 합창단에서 지휘자로 있으면서 취미로 시작한 것에서 욕심이 났어요.” 기원 스님과 플루트의 인연은 음악 선생님을 통해 접했다. “사실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피아노학원에서 플루트를 배우는 모습을 보며 무척 부러웠죠.” 방과 후 수업으로 지도받기 시작하면서 주지스님을 조르고 졸라 기어 이 가장 저렴한 20만 원짜리 플루트를 선물 받았다. “악기 자체가 여섯스럽고 부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악기를 다룰수록 신이 났고 플루트를 전공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한 달에 5만 원하는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 1주일에 한번 있는 수업을 싸구려 악기로 연습하다 보니 고장 나기가 다반사였다. 3류 대학이라도 좋으니 플루트로 대학에 가겠노

라 다짐했고 성대에 염증이 생겨 수술을 하고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시절을 회상하는 내내 두 스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치열한 노력 끝에 경원대 음대에 당당히 합격한 스님은 졸업 연주회를 훌륭히 마치고 성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기원이란 법명을 받았다.

#“돈으로 음악하지 마라. 승부는 실력이다”

어린 형주를 업어 키운 이가 기원 스님이다. 스님은 한 시도 플루트를 손에서 댄 적 없었고 형주에게 그 연주가 자랑이었다.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며 자란 형주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자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저음 악기 콘트라베이스를 만지며 “이 악기가 마음에 들어 너무 배우고 싶다”며 울고 때를 쓰기 시작했다. 악기가 크고 현이 굵어서 어린 아이가 과연 다룰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새살이 수백 번 툄도록 열정은 식지 않았다.

처음부터 어른용으로 시작했지

만 초등부 콘트라베이스공부에서 수상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어느 날 예선에서 만점을 받고도 본선에서 대상을 놓친 날 밤을 먹으면서도 눈물을 푼다 흘리던 형주는 그 후 단 한 번도 1등을 내준 적이 없다. 한국음악협회전국공부회에서 수상 소감을 부탁하자 형주는 말했다.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당시 마스터클래스에서 형주를 교육했던 마이클 울프 교수(독일 베를린 음대는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어린 음악가다. 앞으로 크게 성장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현재 형주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의 영재양성 예비학교 학생으로 선발돼 일주일에 한 번 레슨을 받고 있다.

형주도 포레 아이들과 같은 고민을 한다. ‘음악이 좋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된 일상이 힘들다.’ 내성적인 성격인 11살 형주가 어느 날 일기장에 담은 독백이다. 형주는 오늘도 자만심을 다스리는 108배를 울리며 굳은 의지를 이어간다.

#“기도와 참선만이 수행의 다가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키웠노라고 자부합니다. 내 분신과 같이 돌봤어요.” 주지스님이 기원 스님께 그랬듯 형주를 향한 애정은 진실 아닌 적이 없었다. 억지로 교육시킨 바 없이 전적으로 스스로의 선택에 맡겼다. 조계종립 은석초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유일한 스님으로 재직하면서 어렵게 배운 플루트를 인재양성에 회향하는 보람을 느낀다. 또한 대학원에서 작곡학을 전공중인 현재 “다양한 장르의 찬불가를 작곡하고 싶다”는 소중한 포부를 밝힌다.

주지스님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두 음악가들이 미래의 부처이며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큰 음악을 공부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작은 절, 녀석하지 않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울곧게 성장하는 두 음악 영재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기원해 마지않는다. (02)888-5113

기연속 기자 omflower@buddhapia.com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10> ‘참사람(無位真人)’의 주인공 서용 대선사

만안 스님은 서용 대선사에게 법을 전하면서, “백양산의 사나운 범이/ 한 밤중에 돌아다니며/ 사람들 다 물어 죽이나/ 가을 하늘에 밝은 달빛이/ 서릿발처럼 차갑다.” 하고, 종성 스님은 스님의 진영에, “늑대한 눈 닦고검쳐 휘두르니/ 부처도 맘대로 죽이는 무위진인이라도/ 한 번 노할 때 사마외도가 소망되니/ 천년고목에 백화가 새롭도다.” 고 썼다. 참으로 서용 대선사에 꼭 알맞은 글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처음 스님을 본 것은 1962년 동국대학교 선원장으로 취임하시기 전 돈암동 신지정 정광학교 교장선생님 댁에서였다. 장이 파열돼 흥내과에서 수술했는데, 마취주사를 맞지 않고 그냥 생살을 찢어 병원장님



교의 자랑이요, 민족의 긍지를 일깨워준 일대폐사라 아니할 수 없다.

소개가 끝나자 큰스님은 주장자를 세 번 치고 ‘할(喝)’ 하신 뒤 말씀하셨다.

“선은 직절근원에 의한 절대주체의 자각이다. 그러므로 물질이나 마음, 신이나 부처에 얽매이면 그 자리서 죽고 만다. 르네상스 이후 기독교신학이 극복되고 인본주의가 썩 트면서 대자연의 목적론적 면에서 해석하지 않고, 기계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인류의 문화는 자연정복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흘러 자연을 황폐시키는 욕망사회가 되었다. 현대의 욕망주의는 배금주의요, 식욕주의요, 성욕주의이니 이를 해결하려면 선을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이어 계승을 읊기름)
“임소개진(位所皆眞) 선 자리가 모두 진실하고하고 수처럼

선은 직절근원에 의한 절대주체의 자각이다

“ 현대의 욕망주의 해결하려면 선 해야해 ”

이 도리어 땀을 뻘뻘 흘리며 수술했다고 했다.

진실해 보살님은 자손이 없는 외로운 불자였지만 시봉 하나를 데리고 동·서·남·북에서 오는 스님들을 인연에 따라 시봉했다. 그 분은 언제나 홀로 있을 때는 참선과 염불을 주로 하고, 오는 스님들에게 법문을 많이 들어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거의 없었다.

우리는 그 보살님으로부터 스님에 대한 말씀을 종종 듣고, 친히 법기를 원했으나 좀처럼 기회가 닿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동국대학교 선원장이 되시면서 자연스럽게 법계 되었는데, 사화자가 말했다.

“스님께서는 1912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7세에 부친을 잃고, 17세에 조부와 모친이 별세한 뒤 세상 무상을 느끼고 불

연산보통학교에서 서울 죽림학교로 전학,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불교전문을 거쳐 오대산 방한암 스님 문하에 들어가 2년 동안 참선하였다. 1939년 일본 일제대학에 들어가 세계적인 선지도자 히사마쓰 신이지방사와 교류하고, 일본 불교학자 니시타 가파로와 다나베 하지메의 선설을 파하여 큰 화제를 일으켰으며, 임제종 총본사 묘심사에서 3년을 안거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졌다. 일제 36년 동안 일본사람들에게 얼마나 압박을 받고 살아왔는데도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일본’ 하면 사족을 못 쓰는 판국에 일본 유학을 가서까지 학문적으로나 수행적으로 그들을 능가했다는 것은 한국 불

청(隨處顯清: 곳곳마다 맑음을 드러내면하면 오역문뢰(五逆聞雷: 오역죄인이 우뢰를 들더라도 수처작주(隨處作主: 처한 곳마다 주인이 되리라)하리라.”

그 후 상도동 백운사에 가서도 그와 비슷한 법문을 듣고 장성 백양사에 가서도 그와 같은 법문을 들었다. 스님께서 쓰신 <임제록>은 우리 불교계에 던진 최초의 종문서이고, 다음 ‘참사람 결사’를 하시며 제창하신 <벽암록>은 선을 공부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한번은 참고해야 할 기본 자료이다.

“상왕빈신 사자후여/ 벼락불속에서 정과 사가 가려지네/ 맑은 바람 늑듬하 하를 땅 스치니/ 백악산 거꾸로 타고 종관문을 벗어났다네.”

이것이 스님의 오도송이다.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 빙의 치유**
-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인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사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전수 - 치유
- 신침전문,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통향아리 불부향전문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부산본부 : 부산시 북구 화명동 1388-8 지장사 ☎ 051)364-5586 , H.P. 010-3056-3315

서울지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5-230 트림필드 102동 510호 ☎ 02)796-7579

본부장 - 현오 합장 010-3056-3315
지사장 - 혜진 합장 010-7508-3315
실 장 - 혜성 합장 010-7509-3315

- 부산교육 : 화, 수, 목 ●서울교육 : 금, 토, 일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